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訓

1. 宗組精神의 高揚
2. 宗族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宗報

제43호 2005. 2. 1 (화)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김종식/편집인:김봉환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 / 전화:(02)400-2501~2502/FAX:(02)400-2505

순천김문(順天金門)들이여 힘차게 화치며 떨치어라



2005년 을유(乙酉)년 여명(黎明)을 알리는 장닭의 힘찬 화침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일깨웠습니다. 천방지축 날뛰며 우리를 괴롭히던 갑신년(甲申年)의 원숭이들을 긴 어둠 속으로 쫓아버리고 천복(天福)의 상징인 을유년(乙酉年) 닭의 해를 맞이하여 순김(順金)의 가정(家庭)에 만복(萬福)이 충만(充滿)하기를 기원합니다. 문(文), 무(武), 용(勇), 인(忍), 신(信)의 오덕(五德)을 두루 갖춘 영물의 닭은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매김을 하여 도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今年)은 을사근약(乙巳勤約)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韓日協定) 40주년,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해로 모두가 우리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 온 해를 맞이하여 우리 순천김문종사(順天金門宗事)에도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응졸한 갈등과 시기 퇴폐적인 중상모략 등 소득 없는 탁상공론에서 훨훨 털고 일어나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며 화합(和合)과 포용으로 순김(順金)이 하나 되어 무한한 도전을 하여 자자손손(子子孫孫) 명문화별(名門華閥)의 찬란한 종사(宗事)를 기록하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는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크고 작은 위선사업(爲先事業)을 마무리하여 우리의 면모를 일신하였고 득성(得性) 이후 내외가 인정하는 대동보(大同譜)를 발간하여 반질함으로써 순김(順金)의 위상이 이 나라 역사(歷史)에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의 을유년(乙酉年)을 맞이하여 을유4대 위선사업(爲先事業)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1. 삼문 개축 사업(三門改築事業)

동원재(同源齋) 성역화 사업의 마무리 사업(事業)인 삼문(三門)을 개축

(改築)하여 문화재(文化財)로 등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명문 후손(名門後孫)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국가가 영원히 보존토록 할 것입니다.

2. 경덕재(景德齋), 연대재(蓮臺齋)실 준공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는 진력을 다하여 협조함으로써 빠른 기일 내에 재실(齋室)을 완공(完工)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 중앙종친회 회관 건립(中央宗親會 會館 建立)

수도 서울에 우리 순김(順金)의 상징인 종친 회관(宗親 會館)이 우뚝 섰으로써 순김(順金)의 기상을 떨치고 새로운 종사(宗事)를 열어 나가는 중심체가 되겠습니다.

4. 교육 및 문화 사업(文化事業)

- ㄱ. 하계(夏季) 대학생(大學生) 교양 강좌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인에게도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ㄴ. 종친(宗親) 중 저명한 석학들로 구성된 집필진으로 하여금 세적 총람 및 단행본 교재를 발간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ㄷ.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극대화하고 수혜자의 수와 지급 금액을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 ㄹ. 지금까지 교양 강좌 수료자들에게 성지 순례(聖地巡禮)를 통하여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4대 위선사업(爲先事業)을 위해서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 집행부는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을유년(乙酉年) 연말, 수도 서울 한 가운데 우뚝 선 순천김문종친회관(順天金門宗親會館)에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가의 가정(家庭)에 조상의 음덕(陰德)이 충만(充滿)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을유년 원단

謹賀新年

중앙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표 김철우
부주 김미소



총 감

무 사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부 회

장 장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안동종친회

신년 하례회, 회장단 연석 회의 개최

• 1월 17일, 중앙종친회 회의실 •

중앙종친회는 을유년 새해를 맞아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임원과 원로 종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축하 떡을 나누는 가운데 열린 을유년 신년 하례회에서 종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종친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하며 역사적인 대동보 편찬을 계기로 전 종친이 하나 되어 보다 자랑스러운 문증을 이룩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참석한 원로 종친들은 작금에 분제되고 있는 정부의 호주제 폐지를 겨냥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문의 역사와 조상 전체의 미풍양속을 전승하는 일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말하고, 종친 모두의 바른 역사 인식과 전 종친의 하나 됨을 위해 종사에 발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동보 출간에 이은 중앙종친회의 세적 총람 발간에 대한 필요성과 설명이 있었으며 호주제 폐지에 즈음해 승조 예친 사상이 날로 희박해지는 때에 다시 한번 대동보 출간의 선견지명과 시의적절성을 확인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세적 총람 발간도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중앙종친회는 빠른 시일 내에 세적 총람의 발간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지난 88년 발간된 「세적보」를 포함해 전국의 전파종회를 망라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고증을 위한 전문편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장단 연석회의를 겸한 이날 모임에서는 그동안 종사에 헌신해 온 안동 구담 출신 양경공 18대손 수연종친(60세)을 부회장에 임명하고 중앙종친회 업무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맡겼다. 동아일보와 한국방송(KBS)에서 언론인으로 봉직해온 신임 부회장 수연종친은 수년 전 절재공(김종서장군)의 일생과 역사의 업적을 담은 인물 평전 「거칠 것이 없어라」(김영사 출판)를 기획, 출간해 조상의 위업을 널리 알렸으며 수년 전 KBS에서 방송된 역사 드라마 「왕과 비」에서 왜곡된 절재공의 위상을 바로잡아 절재공을 조선조 초의 충신으로 그리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신임 수연 종친은 특히 이날 취임에 즈음해 특별한 종사에 보탬이 되도록 천만 원 헌성 약속을 했으며 이미 지난해 말에는 구담 국담정사 중수에 오백만원을 내놓은 바 있다.

▼ 신임 부회장 수연 종친(양경공 18대손)



지난해 10월, 사재를 털어 20여 년간 전국민 독서 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한국간행물윤리상 대상 수상했다.

중앙종친회 제15기 정기총회 개최

• 2004년 11월 11일, 시조 묘역 가락당 •

중앙종친회 제15기 정기총회가 지난해 11월 11일 전남 순천, 주암 시조 묘역에서 전국 각처 30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수연종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종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종사에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은 전국의 종친들에게 감사와 치하를 보내고 역사적인 대동보 편찬으로 열조 앞에 부끄럽잖은 후손이 되는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 말을 맞은 5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앞서 종식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6대 회장에 추대됐다.

이날 6대회장에 추대된 종식회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순천김씨 약사 편찬과 회관 건립이라는 막중한 종사를 외면하는 것은 후손으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수락하게 됐다고 밝히고 순천김가문의 근대사로 마무

리될 대동보 편찬을 포함한 3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역량을 바칠 각오로 종사에 임하겠다고 말해 참석한 300여 종친의 갈채를 받았다.

시조 추향제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처에서 십여 대의 버스와 승합차 등을 이용해 시조 묘역 행사 이레 가장 많은 400여 종친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초헌관 동택 종친, 아헌관 기연 종친, 종헌관 동균 종친, 산신헌관 봉태 종친 등이 각각 분정, 임축히 제를 올렸다.

이어 있는 2세 이하 선조 제단 제사에서는 초헌관 동주, 아헌관 인수, 종헌관 병환 종친이 각각 분정, 제를 올렸다.

한편, 이날 시조 묘역 행사에서는 묘역 행사 이레 가장 많은 종친들이 참석해 식사 준비를 두 차례나 하는 등 뿌듯한 불평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묵재공(默齋公) 추향제

· 2004년 11월 6일, 충남 금산 ·

묵재공(默齋公) 추향제가 지난 해 11월 6일 충남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에 있는 송절사에서 지역 유생 60여명과 종친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금산 유림회가 주관, 해마다 봉행되고 있는 이날 묵재공 추향제에서는 묵재공과 종손 동택 대종손, 묵재공과 왕영 회장, 상용중앙종친회 부회장 학원, 절재공과 회장 기원 종친 영희, 황성공과 회장 중용, 지연종친, 준희 감찰공과 대표 동훈 종친 등이 참석했으며 동원 종친은 묘소를 참배한 종친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 다과를 대접하며 종친간의 화목을 다졌다.

절재공(節齋公) 추향제

· 2004년 11월 13일, 공주 장기면 금소 ·

절재공(節齋公) 추향제가 지난해 11월 13일 충남 공주군 장기면 대교리 묘소에서 60여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이날 지평공조의 묘사에서는 초헌관에 동택 대종손, 아헌관에 명재 종친 종헌관에 준희 종친이 각각 분정, 제를 올렸고 이날 이어 베풀어진 총재공 묘사에서는 초헌관에 길현 종친, 아헌관에 수용 종친 종헌관에 재환 종친이 각각 분정, 제를 올렸다.

또, 절재공 묘사에서는 초헌관에 길원 종손, 아헌관 기섭, 종헌관에 상길 종친이 각각 분정 제를 올렸다.

양경공 묘역 정화 사업 순조롭게 진행돼

· 2004년 11월 11일 양경공 추향제 올려 ·

양경공 추향제가 지난 해 11월 11일 경기도 퇴촌면 원당리 양경공 묘역에서 19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특히 이번 추향제는 양경공 묘역 정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의미를 더 했으며 현재 재실과 종택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변 조경과 주차장 시설 등 일부 공사를 남겨놓고 있다.

이날 추향제에서는 초헌관 한철 양경공 종손, 아헌관 기연 종친, 종헌관 동택 대종손 등이 분정, 제를 올렸다.



충정공 추향제도 열려

양경공 추향제에 이어 같은 날 오후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충정공 묘소에서 추향제가 열렸다. 이날 충정공 추향제에는 양경공 추향제에 참석한 종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초헌관 재준, 아헌관 동택, 종헌관 동균 종친이 각

각 분정, 제를 올렸다. 한편 충정공 묘역에는 재실 공사가 한창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주변과 진입로 공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구담 국담정사(菊潭精舍) 새 모습으로 단장

· 2004년 11월 24일 준공식, 추향제 올려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국담정사가 공사를 시작한지 1년여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됐다.

지난해 4월 안동종친회의 발의로 시작된 국담정사 보수공사는 후손들의 정성어린 헌성금으로 1년여 만에 새로 단장돼 지난해 11월 2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종식 중앙종친회장을 비롯해 철의 양경공 종회장, 영희 고문 등 전국 각회에서 250여 종친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동명 종친이 제작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국담정사 보수 공사에는 전국에서 많은 종친들이 관심과 헌성금을 보내왔으며 특히 구담 출신 수연종친은 사재를 털어 20여 년간 전 국민 독서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받은 한국간행물윤리상 대상 수상 상금 5백만 원을 선뜻 내 놓았다.

양경공 종회장 철희종친은 5백만 원을 헌성해 귀감이 됐다. 또, 현판을 제작한 동명종친은 10폭 병풍을 직접 제작해 희사했고, 그동안 보수 공사에 앞장서 온 안동종친회장 철우 종친, 봉환, 동성, 병덕, 오현 종친 등 중추추진위원들이 전 종친들의 격려를 받았다.

이밖에도 안동 종친 친목회 부녀회에서는 침구와 식기 등 2백만 원 상당의

국담정사 비치기물들을 헌성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담공 묘제에서는 초헌관에 종식회장, 아헌관 철희, 종헌관 동균 종친 등이 집례했고, 국담정사에서 치러진 망제에는 초헌관 두연, 아헌관 기연, 종헌관 석윤 종친 등이 집례를 맡았다.



취담정(翠潭亭) 중수(重修)

• 국담(菊潭)휘 유온(有溫)공의 16세손으로 초휘 상재 •

자 경도(景道) 휘 기황(基璜)공이 세운 유서 깊은 취담정이 새로 단장된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에 있는 취담정을 건립한 기황(基璜)공(1841~1889)은 1883년에 문과에 급제, 통훈대부(通訓大夫)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역임 하셨다. 기황(基璜)공은 생전 부모에 효성이 지극했고 친척간에는 화목의 표상이 됐으며, 인심이 후덕하여 흉년에는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 하는 등 후대에까지 본받을 삶을 사셨다. 취담정을 세운 기황(基璜)공은 가까운 지역 문우, 친우들과 정자에 자주 회동하고 우국충정의 혼을 불 태웠으며 현판의 제자는 흥선 대원군의 친필로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관리소홀로 삼분의 일 가량이 무너져 폐가나 다름없이 된 취담정은 이번 안동시로부터 3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봉환 종친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종파 가구당 백만 원씩 천만 원을 헌성 받아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중친 동정

독립유공자 돕는 빙그레 김호연(金昊淵) 회장

2001년 이봉창 의사를 기념하는 단체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사재를 털어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 해부터 아예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민족 정신 계승 사업에 가장 열성적인 총수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맡고 있는 관련 직책은 이봉창 의사 기념 사업회 회장 외에도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 부회장, 백범 김구 기념관 운영위원, 광복회 자문위원 등이 있다. 그가 93년 삼희 재단 명칭으로 설립한 순천장학회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불우 청소년에게 학비를 지원해오다 2001년부터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다. 일제시대 독립 운동을 하다 순국하고도 증빙 자료가 없어 국가 서훈에서 제외된 독립투사의 후손도 대상이다. 선친 (한화그룹 창업주 고 金鍾喜)께서도 국가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념

으로 하셨으니 김회장의 민족정신 계승사업에 대한 열성은 가풍(伽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김회장의 부인인 김미씨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다. “백범의 손주 사위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김회장은 평소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게 늘 안타깝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경영인으로서도 김구 선생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게 김회장의 지론이다. <註> 우리 종친 학생 중에도 2년에 걸쳐 20명이 순천장학회 장학금 혜택을 받은 바 있음.

금산(錦山)의 일꾼 김동원(金東元)

• 묵재공(默齋公) 18세손 •

종질사에서 묵재공조의 향사가 유립회의 주관으로 매년 이루어지는데 후손들 30여 명이 모였고, 중앙종친회 부회장 상용, 절재공파 회장 학원 종친, 황성공파 회장 영희, 지언, 중용종친 감찰공파 대표 춘희, 동훈 종친 등은 참석하였고, 귀로에 동원 종친의 안내로 묵재공조 묘전에 같이 가서 참배하고 동원 종친의 집으로 초청 다과를 베푸는 등 종사에 젊어서 부터 남다른 열성으로 참여하고 종친간의 화합에 노력하는 모범적인 종친이며 지역 사회에도 공헌이 많은 종친이다.

- 전북대학교 졸업
- 국제로타리 클럽 36년간 봉사 초아봉사상 수여
- 금산 체신협력회 회장 (現)
- 금산 신용협동조합 부회장
- 금산 태권도 유단자협회 회장 (現)
- 순천김씨 지평공파 이사 (現)

결혼

12월 25일 동수씨 장녀 원희양 / 두리원웨딩홀
1월 1일 동일씨 장남 정환
정찬봉 차녀 해란
/ 신라뷔페웨딩

부음

12월 6일 경환 모친상 (안동의료원)
12월24일 동수씨 별세 (안동의료원)
1월14일 영남 모친상 (안동의료원)

미담



철우(안동종친회장) - 불우이웃돕기
안동종친회 회장 김철우씨는 연말을 맞이하여 종친중 독거 노인들에게 쌀 한부대씩, 구담 1, 2동에 각각 3포식 노인들을 위해 나눠주었다.

수상

수연
한국간행물윤리상 독서진흥부문 수상

동정

수연
새 부회장에 선임

www.schkim.co.kr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홈페이지를 다채롭고 풍요롭게 할 예정입니다.
 전국 종친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알리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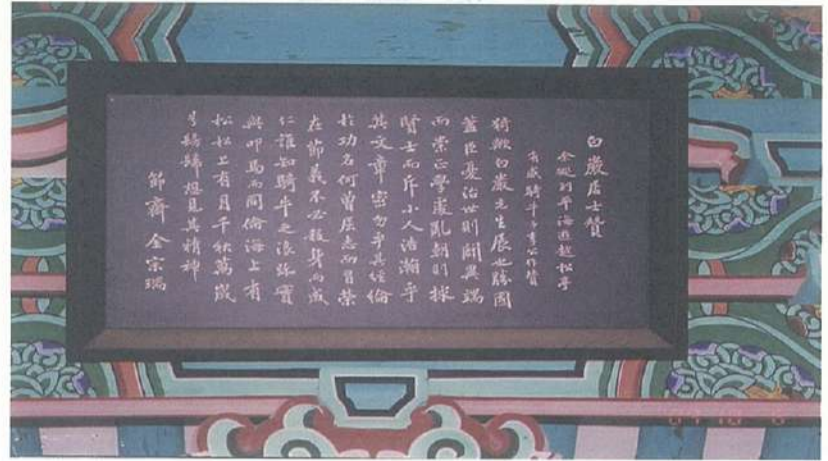
월송정 정자에 절재공 시판이...

백암거사찬 (白巖居士贊)

내가 순시 중에 평해에 도착하여 월송정에서 놀다가 기우자에게 느낀 바 있어 이공의 찬을 지었다.

아름답다 백암 선생이여
진실로 고려의 충신일세
국사를 다스림에 이단을 물리치고 정학을 숭상하려 근심했고
조정이 혼란하자 어진 선비들을 구하고 소인배들을 배척했네
문장은 호한했고
경륜은 훌륭했네
공명은 어찌 뜻을 굽혀 영예를 탐했으리
절의는 살신을 하지 않고 인을 이루었네
뉘라서 기우자의 은둔한 자취가 실은 백이숙제와 같음을 알리오
바다 위에 소나무 있고 소나무 위에 달 떴는데
천추만세 방불한 그 정신을 미루어 알 수 있네
절재 김중서

(참고 : 이항(1352~1432) 은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 본관은 여주, 경연 참찬관, 예문관대제학을 지냈고 1392년에 이조판서로 정몽주를 살해한 조영규를 탄핵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예천동에 은거하였다. 1393년(태조2)고려 사관 시절 이성계를 무고한 죄가 있다고 탄핵을 받아 가산이 적몰되고 울진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시호는 문절. 이 찬은 '한국문집총간' 7, '기우집' 권2, 378면에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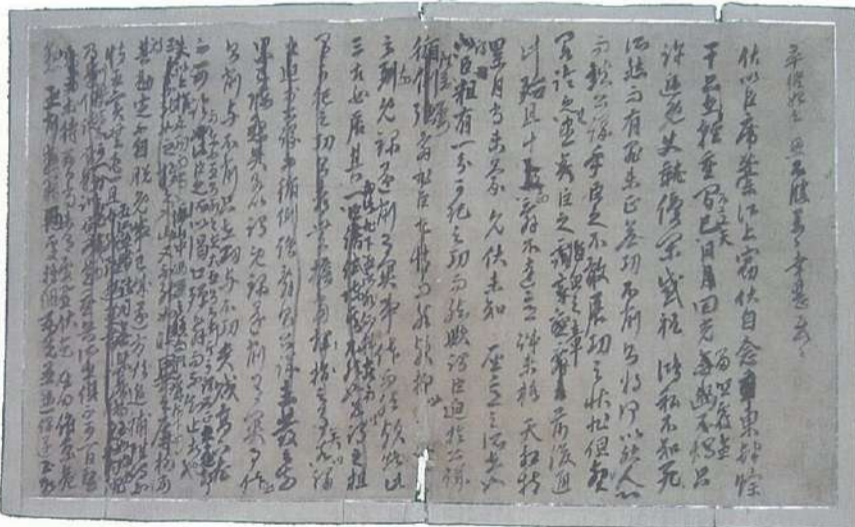


越松亭

푸른 바다 흰 달이 소나무에 반쯤 떠 있고
소뿔 드리며 돌아올 제 흥취가 무르익네
정자에서 시 읊기 마치고 술 취해서 자는데
꿈 속에서 선계의 신선들 만나서 놀았었다네

이는 고려 예문과 대제학 기우자 이 선생의 시이다. 선생님은 평해항 씨 외손으로 백암산 아래로 귀양와 스스로 호를 백암거사라고 하였다. 매년 달밤에 소를 타고 가 월송정에서 놀았다. 이 시는 곧 그때 지은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절재의 백암거사찬을 새겨서 걸어놓는다

북저공 류, 상소문



臣이 江上에서 앞드려 석고대좌하며 그윽히 생각하건대 동이(禮曹)에서 銓干에 干與하는 것, 논공행상하는 것은 오직 (功의) 輕하고 重함을 論議할 뿐입니다. (그러나) 뜻하지도 않게 하늘의 해(임금의 뜻)가 빛을 과시 해서 엮어진 동이의 밑바닥에 머물러 단지 벼슬을 바꿔 그 職任을 免하는 것을 許諾하사 더욱 더 閑暇함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個人에 내리신 鴻恩에 感祝하여 죽을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罪가 있음에도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功이 없는데도 그 功勳을 깎지 않는다면 將次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承服시키고 공의를 鎮定시킬 수 있겠습니까?

臣이 敢히 功勳에 있을 수 없는 정황은 非但 基閣에서 이미 論議를 다 하였을 뿐 아니라 臣으로서도 眞心을 토로한 글을 前後에 걸쳐 거의 열 번이나 올렸으며 말씀이 그 뜻을 다하지 못해 眞實로 하늘(임금)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버티기를 여러달이나 되었으나 아직도 許諾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앞드려 생각하건대 聖上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臣을 일러 일말이라도 기록할 功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臣을 일러 공의에 僭박되어 비록 여러 차례 상양함에 이르른 것이 臣의 본 뜻이 아님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아니면 이 몸이 외람되게 大臣의 자리에 있는 까닭에 기왕에 녹훈된 것을 다시 깎는다는 것이 사체에 關係된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세가지 條件中 반드시 그 한가지에 있을 것이로되 이

것은 밑에 있는 臣下로서는 우러러 요량하지 못할 일입니다. 만약에 기왕에 녹훈된 것을 다시 깎아 내리는 것이 사체에 關係되는 일이라고 이를라치면 깎고 깎지 않는 것은 功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뿐이요 身分의 貴賤과 지위의 고하는 더욱 舉論하지 못할 것이거늘 小臣의 경우에는 이를 깎고 大臣의 경우에는 깎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公正한 도리라고 일컫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介子推의 功으로도 오히려 山中으로 들어가 隱身하였고 憑異의 功業으로도 오히려 나무 그늘에 물러 앉아 그것을 거절하였거던 당초 論功을 감정할 때 스스로 빠지지 못하고 일이 벌써 이루어졌는데 바야흐로 追加로 보정하려 하니 그것이 비록 情實은 아니라 할지라도 臣으로서도 實로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또 臣이 兼職한 여러 관아의 일이 중요하고 重大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內院(내의원)과 훈국(훈련도감) 같은 관아는 하루 잠깐도 비워둘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건만 여러날을 기다려도 아직 조치하시는 바가 없으니 앞드려 바라건대 聖明께서는 不安해 하는 지성을 굽어 살피시고 빨리 훈적에서 삭제하시고 양처(內院, 訓局)의 제조직을 우선적으로 모두 바꾸시어 至極한 所願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끝내 증시이 恩惠를 간직토록 하신다면 이 보다 더한 다행한 일은 없겠습니까.

승평군원

종친외비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 회 장

김보연	*납4년11월04일	경기 고양
김상근	*납4년12월14일	서울 노원
김광홍	*납5년01월17일	서울 은평
김경남	*납4년10월06일	경기 안산

고 문

김인배	*납4년11월11일	일본 동경
김명규	*납4년12월16일	울산 남구

운영위원

김인섭	*납4년11월25일	부산 부산진
김형근	*납4년11월04일	경기 고양

회 원

김동규	*납4년11월08일	서울 강서
김백원	*납4년11월15일	전남 목포
김원선	*납4년12월16일	대전 대덕
김동준	*납4년11월15일	전북 임실
김영상	*납4년11월29일	서울 송파
김상묵	*납4년11월15일	전남 해남
김상기	*납4년11월04일	광주 동구
김봉빈	*납4년11월15일	전남 해남
김길용	*납4년12월16일	광주 남구
김화중	*납4년12월15일	경기 수원
김창희	*납4년12월04일	충남 금산
김성환	*납4년12월02일	경북 영천
김유환	*납4년11월30일	충남 부여
김승부	*납4년11월15일	전남 해남
김유원	*납4년11월15일	전남 해남
김원주	*납4년11월19일	강원 정선
김재극	*납4년12월03일	경기 의정부
김재용	*납4년12월01일	경기 성남
김정희	*납4년11월02일	충북 청주
김종희	*납4년11월26일	광주 북구
김주락	*납4년12월02일	울산 중구
김춘식	*납4년11월29일	인천 서구
김철영	*납4년11월08일	경북 문경
김석연	*납4년11월09일	경기 안산
김진석	*납4년11월30일	전남 해남
김동구	*납4년12월01일	경기 고양
김완선	*납4년11월16일	경기 고양

김영철	*납4년11월10일	경기 의왕
김인성	*납4년11월22일	경기 화성
김상희	*납4년11월04일	경기 화성
김광원	*납4년11월08일	경기 포천
김길원	*납4년11월03일	전남 담양
김성근	*납5년01월05일	서울 강서
김인식	*납4년11월25일	경기 용인
김장덕	*납4년12월09일	전남 해남
김판영	*납4년11월04일	전남 담양
김동국	*납4년11월15일	서울 은평
김 명	*납4년11월18일	경기 양주
김양춘	*납4년11월04일	부산 남구
김육남	*납4년12월02일	경기 고양
김인성	*납4년11월03일	경기 의정부
김천연	*납5년01월10일	울산 중구
김선원	*납4년12월03일	대구 수성
김동균	*납4년11월15일	경남 창원
김도연	*납4년11월04일	서울 도봉
김중근	*납4년11월26일	부산 강서
김용욱	*납4년11월22일	전북 완주
김찬정	*납4년12월10일	충남 부여
김대영	*납4년12월27일	경북 문경
김의웅	*납4년12월27일	대구 남구
김창수	*납4년11월22일	서울 중랑
김재환	*납4년12월01일	강원 원주
김호윤	*납4년11월16일	울산 중구
김동경	*납4년11월01일	경기 고양
김수호(호연)	*납4년11월17일	서울 금천
김세희	*납4년11월29일	인천 남구
김공남	*납4년12월20일	광주 광산
김원희	*납4년11월03일	경기 남양주
김중근	*납4년11월26일	서울 성북
김중식	*납4년12월08일	경기 남양주
김지호	*납4년12월02일	서울 용산
김성희	*납4년12월09일	서울 종로
김중영	*납4년11월16일	경기 가평
김천섭	*납4년11월03일	부산 연제
김재순	*납4년11월02일	서울 마포
김동필	*납4년11월02일	서울 강동
김형연	*납4년11월12일	경북 포항
김종락	*납4년11월26일	경기 이천
김병진	*납4년11월03일	서울 은평
김창환	*납4년11월04일	서울 서대문
김희남	*납4년12월01일	강원 원주
김홍배	*납4년11월11일	광주 북구
김만환	*납4년11월04일	서울 강남
김만조	*납4년12월29일	대구 서구
김병욱	*납4년11월16일	서울 마포
김기석	*납4년12월23일	전남 담양
김선희	*납4년11월03일	전남 화순
김도연	*납4년12월02일	경북 구미
김광산	*납4년11월30일	전남 순천

김병기	*납4년11월11일	서울 강동	김동표	*납4년12월08일	경북 안동
조성자	*납4년11월12일	서울 광진	김두연	*납5년01월03일	경북 상주
김종오	*납4년11월04일	서울 광진	김두진	*납4년12월07일	서울 동대문
김동웅	*납4년12월17일	대구 달서	김만희	*납4년11월03일	경북 문경
김상천	*납4년11월02일	경기 안성	김문희	*납4년11월04일	전남 여수
김윤수	*납4년11월10일	경기 파주	김방현	*납4년11월11일	경북 안동
김병훈	*납4년11월04일	전남 영암	김연만	*납5년01월14일	충북 청원
김길연	*납4년11월29일	부산 동구	김상옥	*납4년12월27일	전남 순천
김장희	*납4년11월04일	전북 전주	김상학	*납4년11월03일	서울 노원
김운용	*납4년11월11일	서울 영등포	김상호	*납4년11월29일	경북 포항
김용열	*납4년12월31일	서울 성동	김석산	*납4년11월03일	경북 안동
김태남	*납4년12월06일	경기 안산	김성연	*납4년11월03일	울산 남구
김태석	*납4년12월07일	충남 보령	김세환	*납4년12월07일	충남 보령
김태연	*납4년11월09일	충북 청주	김수연	*납4년11월18일	경남 하동
김학연	*납4년11월26일	강원 철원	김순옥	*납4년11월03일	전남 해남
김해동	*납4년11월04일	서울 관악	김순정	*납4년12월10일	충남 서천
김 호	*납4년11월02일	서울 동작	김안석	*납5년01월03일	전남 해남
김호철	*납4년12월02일	서울 도봉	김연호	*납4년11월05일	서울 관악
김효진	*납4년11월15일	경남 진해	김영조	*납4년12월28일	광주 서구
김희완(정)	*납4년12월22일	대전 서구	김영환	*납4년12월22일	충남 보령
김병희	*납4년11월05일	충남 논산	김용환	*납4년11월09일	충북 제천
김규삼	*납4년11월12일	서울 강남	김구연	*납4년11월11일	대구 달성
김덕재	*납4년11월03일	경기 남양주	김중훈	*납4년12월10일	대구 달서
김동식	*납4년11월19일	서울 광진	김병렬	*납4년12월28일	대전 서구
김동철	*납4년11월04일	대구 북구	김대근	*납4년11월30일	경기 고양
김상민	*납4년11월04일	경기 안성	김인선	*납4년11월22일	경기 화성
김상용	*납4년12월21일	전북 익산	김학영	*납4년12월30일	대전 서구
김영석	*납4년11월04일	전북 전주	김정연	*납4년12월08일	대전 서구
김영익	*납4년11월02일	서울 영등포	김동인	*납4년11월29일	경북 문경
김원섭	*납4년11월01일	서울 광진	김낙희	*납4년11월30일	부산 남구
김재수	*납4년11월04일	전북 전주	김인영	*납4년11월02일	서울 도봉
김종익	*납4년11월04일	전북 임실	김중환	*납4년11월03일	경기 안성
김필수	*납4년11월04일	인천 강화	김동경	*납4년11월04일	대구 달서
김학주	*납4년11월10일	경기 남양주	김달웅	*납4년11월30일	경북 상주
김한용	*납4년11월22일	경기 수원	김희연	*납4년12월01일	경북 상주
김인식	*납4년11월25일	경기 용인	김춘연	*납4년11월09일	경기 양주
김관성	*납4년11월12일	서울 종로	김병남	*납4년11월02일	경기 김포
김광도	*납4년11월17일	강원 양구			
김규수	*납4년11월29일	전남 해남			
김근모	*납4년12월02일	전남 여수			
김동국	*납4년12월28일	경기 고양			
김동근	*납5년01월05일	경기 고양			
김동소	*납4년12월07일	경북 경산			
김동수	*납4년11월09일	충북 충주			
김동욱	*납4년11월16일	경북 문경			
김동운	*납4년11월08일	경북 문경			
김동일	*납4년11월01일	경기 가평			
김동일	*납4년12월02일	경기 시흥			
김동주	*납5년01월07일	경남 양산			
김동주	*납4년11월25일	부산 기장			

누락자

종보 40호

김윤영	*납3년12월31일	인천 동구
김영관	*납3년12월30일	충북 괴산 (대의원)
김영환	*납4년01월15일	서울 강북

종보 41호

김동철	*납3년12월29일	충북 충주
김홍연	*납4년03월30일	경기 파주
김원종	*납4년04월27일	서울 강동

당신의
*꿈을 믿습니다

www.hanwha.co.kr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도전입니다. 험한 산을 오르는 땀방울 뒤에 우리의 꿈도 한걸음씩 다가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십시오. 꿈을 향한 행복한 도전, 한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꿈, 행복한 도전 - 한화

